

아산의 자화상-자서전에 나타난 아산의 삶

정원섭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

<목 차>

1. 아산 자서전의 인문학적 의미
2. 자서전으로 본 아산의 일대기
3. 서사적 자아 구성
4. 아산의 자화상 : 타고난 일꾼
5. 아산의 꿈
참고 문헌

<국문 초록>

아산의 일을 탐구하기 위한 본 연구는 아산이 남긴 자서전과 연설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자서전은 글쓴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밝히는 내밀한 고백이자 성장사라는 점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서전은 개인의 불완전할 수 있는 기억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아산과 관련된 새로운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 스스로 이미 밝힌 이야기들간의 내적 연관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아산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아산의 일생을 네 단계, 즉 이립(而立), 계가(齊家), 경국(經國), 평천하(平天下)로 나눈 후 신용이나 근면성실과 같이 아산이 일생 동안 소중히 생각한 가치들뿐만 아니라 아산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주목하였다. 우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솔을 반복하던 소년 아산이 동생들의 강제 징용을 피하기 위해 '창씨개명'까지 하던 시기를 넘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노년의 아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진타이어의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바탕이 되는 이해가능성과 해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산이 말한 여러 일화들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아산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실한 타고난 일꾼'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산, 정주영, 자서전, 자아, 서사, 서사적 자아, 자화상

1. 아산 자서전의 인문학적 의미

아산 정주영! 그는 어떤 인물인가?

격동의 20세기 한반도에 발을 딛고 역사를 총횡무진한 아산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에서 출발하여 '세계 굴지의 기업 [현대]를 세운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거쳐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가' 등등 수많은 찬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경 유착과 노조 탄압 그리고 5공 비리의 핵심'이라는 비난 역시 없지 아니 하였다. 물론 아산은 자신이 '정권과 결탁해서 커 온 것으로 간단히 매도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아산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5년 현재에도 아산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인간 정주영의 모습은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산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던 것일까?

아산의 자화상!

바로 이것이 이 글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산이 남긴 자서전과 연설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아산의 자서전을 통해 아산의 자화상'을 검토하는 이 작업은 아산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산의 자서전은 바로 아산이 아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아산의 성장과정, 인간관계, 심리상태 등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힘든 내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의 자서전은 물론 아산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전기이다. 사실 어느 자서전에서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거나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축소 혹은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 주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미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서전은 저자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산의

자서전 역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나와 이력저런 인연으로 얽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부터 친구와 이웃뿐만 아니라 한때 경쟁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거나 적대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된다. “나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자서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성찰의 과정뿐만 아니라 타인을 우리의 삶으로 수용하는 배려의 과정을 보여 준다. 아산의 자서전 역시 아산에 대한 기록이지만 아산과 더불어 20세기를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공동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낳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찍이 사마천은 『사기(史記)』의 「열전(列傳)」에서 호전법(互見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에서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에 담았던 것이다. 만일 굳이 굳대로 기록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나 기록 자체가 전래될 수 없다는 역설적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산의 경우처럼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서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업이나 사회에 미칠 파장은 그야말로 천금보다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자서전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동양의 경우 일찍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듯 역사적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기록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전과 같은 형식의 기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얼굴 붉히지 아니하는 군자상에 서 보듯 나서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자은무명의 전통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는 가문과 문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후손이나 제자들에게 오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본인이 아니라 후손이나 제자들이 문집이나 행장을 통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에 흡사한 것을 굳이 찾아보자면,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의 경우 스스로 지은

¹ 『論語』, [學而],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시미천, 『史記』, [老君傳], 自隱無名.

모비명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나치게 소략한 것이라 자서전에 비견될 수는 없다.

서양의 경우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서전이 동양에 비해 조금 더 일찍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인 신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최초의 자서전으로 일컬어지는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며 신에게 자비를 구한다. 그는 젊은 날 자신이 품었던 세속적 야망뿐만 아니라 매우 부끄러운 수도 있는 성적 방탕함에 대해서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상세하게 고백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테지만, 혈연이나 학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 역시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자서전은 곧 저자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대의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서전은 정치 지망생들의 자기선전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자서전은 숨겨진 심각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자기고백보다는 드러난 사소한 업적까지 침소봉대하는 자기과시의 방편으로 이용되면서 출간과 더불어 무수한 의혹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기업가나 정치가의 경우 설령 그 주인공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대필의 의혹까지 받으면서 자서전의 신뢰성은 더욱 예리한 의혹과 마주하게 된다. 아산의 자서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아산의 첫 번째 자서전의 경우 아산이 대통령에 임후보하기 직전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적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은 쉽게 외면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대목에서는 정 회장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었다. 다른 대목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비듯이 사실인 양 서술되어 있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중요한 대목이 송두리째 빠져 있기도 했다.”(이성태, p.20)

이런 점에서 아산의 자서전을 통해 아산의 자화상을 조망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자서전이 지닌 한계 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산은 두 권의 자서전을 남겼다. 『나의 삶 나의 이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1991)와 『나의 살아온 이야기 이 땅에 태어나서』(1997)이다. 첫 번째 자서전의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아산의 고회 기념으로 출간된 『아산 정주영 연설문집』과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5공과 6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추가된 점이다.(이성태, p.17). 두 번째 자서전을 시작하면서 아산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말한다.(정주영 1997, p.7). 두 편의 자서전 모두 아산의 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과 오랫동안 인문적 교류를 이어온 정진홍 뿐만 아니라 아산을 고비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다고 할 수 있는 정몽준 그리고 여러 유관 인사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실령 집필 과정에서 전문 작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편의 자서전이 아산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아산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산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산의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산의 기억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해도 아산이 참여한 역사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서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몫으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이 글은 아산의 자서전의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산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하는 것이다. 아산이 소망하는 아산, 즉 "아산의 이상적 자화상" (an ideal self-portrait of Asan)을 구성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산의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립의 시기, 제가의 시기, 경국의 시기 그리고 평천하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분석을 위한 것일 뿐 실제 아산의 삶에서는 상호 중복되고 혼재하거나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 역시 없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듯 우리 삶 자체가 동질성과 이질성을 포괄하며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거듭하는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매킨타이어가 제시한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과 해명가능성(accountability)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아산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본 아산의 이상적 자화상은 신용을 바탕으로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미지의 세계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근면성실한 '타고난 일꾼'이라 할 것이다.

2. 자서전으로 본 아산의 일대기

자서전은 저자가 스스로 밝히는 주인공의 성장사이기도 하다. 아산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두 권의 자서전 자체가 아산의 내면적 성숙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자서전에서 아산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당당히 성공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최일선에서 사업을 펼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나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에 대한 사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성공이 최선을 다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자기과시성 주장은 아산이 소년시절 익혔다고 하는 유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겸양의 가르침과는 매우 멀게만 느껴지게 만든다.

그러나 두 번째 자서전의 경우 아산은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즉 그 일이 자신이나 현대라는 한 기업을 위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한다. 두 번째 자서전의 경우 이 책을 읽을 젊은 후대들을 위한 다양한 조언과 가르침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산은 두 번째 자서전 출판 목적이 "이 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과 소년 소녀들에게 확고한 신념 위에 최선의 노력만 보탬다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타고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싶다"고 한다. (정주영1997, p.7)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회한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서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더 멀리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널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아산의 회고는 첫 번째에 비해 분명 아산의 정서적 성숙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두 번째 자서전에서 아산은 자신의 내면적 변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또한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커지면서 생각의 테두리도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현대건설은 국가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목표가 내 마음 속에 심어진 것은, 굳이 시점을 집어내려면 아마도 6·25 피난 시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만약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면 도저히 지금의 '현대건설'만큼 성장할 수 없었

을 것이다.”(정주영1997, p.106).

이러한 내용을 바탕 삼아 아산의 일대기를 크게 네 단계, 즉 이립의 시기, 제가의 시기, 경국의 시기 그리고 평천하 시기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일도양단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네 시기 역시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당연히 서로 부분적으로 중첩한다.

‘이립(義立)의 시기’란 아산이 장차 사업을 펼쳐 나갈 기반을 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² ‘이립(義立)’이라는 말은 자립을 한다는 의미로 『논어』의 「위정」 편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아산이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확보한 시기를 뜻한다. 아산이 고향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축을 하여 쌀가게를 운영하는 시기까지로 정해 보았다. 이 시기 아산은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네 차례나 가축을 하여 드디어 경일상회를 운영하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제가(濟家)의 시기’란 결혼을 한 후 서울에서 중심에 두고 사업을 펼치는 시기이다. ‘제가(濟家)’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대학』의 표현을 인용해 본 것이다. 1939년 말 쌀가게를 정리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아산은 부친께 돈을 사드리고 결혼을 한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자동차 정비 공장 아도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며 흥동광산에서 일하다가 해방을 맞이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 공사를 도맡아 한다. 이 시기 아산은 고향에 있던 온 가족을 서울로 이사를 시키고 동생들이 정용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하였다고 회고한다.

‘경국(經國)의 시기’는 아산이 ‘현대=대한민국의 현대’라는 의식에서 드디어 기업 경영을 우리나라의 발전과 연관지어며 활동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경국이라고 하면 ‘나라를 경영한다’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산의 일생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기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현대가 해외 진출을

² 『논어』 「爲政」,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전국경제연합회장을 맡기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평천하(平天下) 시기’는 올림픽을 유치 활동에서 나서기 시작하여 대통령에 출마하고 소떼 방북을 통해 남북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등 남북의 평화 공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기 아산의 활동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제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립의 시기 : 빈농의 아들에서 쌀가게 운영까지

이 시기는 아산이 출생한 1915년부터 1939년 경일상회 운영을 마칠 때까지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독한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산은 오로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일념으로 네 차례나 가축을 시도한다. 그리고 인천부두와 풍전염공장 그리고 보성학교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복흥상회에 쌀 배달꾼으로 취직한다. 마침내 아산은 이 쌀가게를 신용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가 내려지자 쌀가게 문을 닫고 고향으로 잠시 돌아간다. 이때가 1939년 12월, 아산의 나이 25세이다. 이 시기를 이립의 시기라고 이름붙인 것은 아산이 쌀가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산은 마을에서 훈장을 하고 계시던 조부로부터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 『대학』, 『맹자』, 『논어』를 배우고 당시(當時)까지 오로지 매를 피하기 위해 달달 외웠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보통학교 졸업이 공식 학력의 전부인 아산은 이렇게 익힌 유학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매우 큰 자부심을 피력한다. 이러한 유학적 소양은 아산의 삶에 실제로 크나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고된다. 시인 구상의 회고처럼 아산이 “천하를 경륜하면서도 촌부자(村夫子) 모습으로 시문을 즐기며 서생과도 한 평생 우애를 나눌 수 있었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때 익힌 한학 덕분이라 할 것이다.

아산은 부친에 대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회고한다. 두 번째 자서전이 부친에 대한 헌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산은 서문에서부터 부친에 대한 절절한 흠모를 담고 있다. (정주영1997, “내 평생의

가장 큰 스승은 아버님.” p.51) 아산의 부친은 농사일이나 살림에 전혀 무관심한 조부를 대신하여 가계와 여섯 동생들을 도맡아 돌보았다. 가족에 대한 부친의 이러한 책임감에 대해 아산은 '가히 경의스러울 정도'였다고 회고한다.(정주영1997, p.16) 뿐만 아니라 가솔한 아산을 그때마다 끝까지 찾아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 부친의 모습은 자식, 특히 맏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갖는 무한한 기대와 믿음을 담고 있다. 아산의 모친 역시 맏아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부친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부모님으로부터 근면성실과 '일등 농사꾼'의 일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산은 고향 아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일하며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일에 대한 이런 건강한 체험을 통해 아산은 평생 동안 스스로를 최고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즐거운 농사일이 적정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통학교를 마친 후 아산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죽으라고 일해도 콩죽을 면할 길이 없는 농촌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 동아일보를 통해 일본 새로운 세계를 그리면서 가솔을 생각한다. 그리고 네 번에 걸친 가솔, 인천부두와 보성전문학교 건설 현장의 날뽕팔이 노동자를 거쳐 북흥상회라는 쌀가게에서 쌀 배달꾼으로 일하다가 드디어 가게 자체를 신용만으로 넘겨받게 된다.

이 가게를 서울 장안의 첫 번째 가는 쌀가게로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경일상회(京日商會)'로 이름을 바꾸어 드디어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 틀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낸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고향의 사촌 동생을 서울로 불러 올려 자신의 일을 돕도록 한다. 비록 중일 전쟁으로 총독부의 전시체제령이 내려지면서 1939년 쌀가게 문을 닫게 되었지만, "쌀장사는 날로 번창 일로"였던 덕분에 아산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때 아산의 나이는 25세였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체험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선 아산은 부친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를 본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우들을 부모처럼 돌보는 큰 형님의 자세이다. 즉 형으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태도로 회사 직원들을 배려하며 가족과 같은 돌보는 이러한 리더십은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아산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둘째 일을 대하는 근면 성실함이다. 아산

은 어떤 일이건 그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한다.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 다 하는 최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엮어온 기본이라고 아산 스스로 회고한다.(정주영1997, p.35) 그러나 아산은 그 일 자체에만 그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희망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였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일의 잠재성을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산의 삶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점이 아산이 일을 대할 때 부친과 다른 점이다.

나아가 아산은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친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아산은 맏아들로서 그렇게 크나큰 기대와 신뢰를 부모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가솔을 감행한다. 다음 구절은 이 당시 아산의 생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이라는 따분한 생각과 농민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망하든 흥하든 보다 광활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과 도전을 펼쳐 보겠다는 데 왜 안 된다는 건가?" 가솔이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며 기존의 틀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담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에게 일언반구도 알리지 않은 채 가솔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온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소관 돈 70원을 훔쳐 가솔을 한다. 이것은 웬만한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하건 할 일은 하는 사람'이라는 아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산이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은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아산의 회고에 따르면 그 당시 법으로는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만 허가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 공장 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보안계장의 집에까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찾아 가면서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한다. 이에 대해 아산은 이렇게 회고 한다. "한 달을 매일같이 찾아다니던 나의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까지의 최선'이 연이연 좋은 결과였다."(정주영1997, p.40)

아산의 인생 전체가 어찌면 이와 같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산이 살았던 20세기 한반도 상황이 식민지, 전쟁, 정변 등의 혼란을 거치며 기존의 관행이나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기존의 질서에 열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 아산의 태도는 20세기 한반도 상황과 잘 부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제가의 시기 : 아도서비스 그리고 현대의 출범

가정을 잘 꾸려 가는 것 역시 자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9년부터 고령교 공사를 마친 1955년까지를 아산의 제가의 시기로 잡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첫째 1939년 아산은 쌀가게를 정리하고 처음 고향으로 돌아와 아산은 부친에게 2000평을 사드리고 결혼을 하였다고 회고한다는 점에서(정주영 1997, p.36) 부모 형제를 적극적으로 보살피며 가정을 이룬 것이 이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령교 공사 마무리 시점을 제가의 시기를 매듭짓는 점으로 간주한 것은 이 공사에서 본 엄청난 손실에 대해 형제자매가 집을 팔아 보충하는 가족 중심 대처 방식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우 신영에 대해 각별한 정을 말하거나 형제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사업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은 점들 그리고 심지어는 서산 농장 개발 자체가 부친을 위한 헌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산의 사업 자체는 이미 가업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과 관련하여 오늘날 세대가 보기에 신기한 점은 결혼을 할 당시 부인에 대해 아산은 자서전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내나 자식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전통적인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터이고 어쩌면 아산이 워낙 무정한 탓일 수도 있을 터이다. 다만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평범한 아내'라는 소제목으로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부인에 대해 아무 욕심없이 자신을 내조한 평범하기 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결혼을 하고 서울로 돌아온 아산은 아무 경험도 없었던 자동차 수리 사업을 과감히 시작한다. 쌀가게 운영을 할 때 사촌 동생을 상경시켜 일을 시켰듯이 여기서도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자동차 아픈 곳을 아는" 매제를 사업에 합류시킨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뢰"이다. 아산의 자서전에서 '배신'은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아산의 리더십 그리고 이후 사업 활동의 바탕에는 6남 2녀의 장남 아산을

정점으로 형에 대한 아우들의 신뢰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또 한 가지, '아도서비스'의 경우, 물론 일제시대이기는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그 이후 여러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도서비스의 화제' 사건을 언급하며 아산은 첫 번째 자서전에는 '어떤 직공의 실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자서전에서 아산 본인의 실수라고 말한다. 흥동광산에서 광물 운송업을 하던 때를 회상하며 아산은 두 번째 자서전에서 창씨 개명한 것을 밝힌다. 그리고 일제 징용을 피하기 위해 동생들까지 이 사업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1945년 5월 흥동광산에서 손을 뗀 후 이듬해 4월 현대자동차를 창업할 때까지 아산은 새로운 사업을 찾으면서 무직으로 지낸다. 아산은 "아마도 나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가정적인 가장 노릇을 했던 시기"로 회상한다.(정주영 1997, p. 46)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혼인한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스무 명의 대가족이 스무 평 남짓했던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아내와 두 제수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시한다. 물론 아내를 두고 여동생과 두 제수씨와 외식을 하고서는 비밀로 했던 일들이며 떠느리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일화도 소개한다. 이러한 일화들은 일견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라는 거함을 초기에 가족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인적 신뢰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피난을 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병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 두고,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동생을 위해 책들을 모두 불태우는 일은 아산이 얼마나 가족을 중시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가족에 대한 아산의 이러한 배려와 장남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풍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면서 아산은 '현대'라는 거함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인적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은 해방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시 적산회사(敵産會社)였던 조선제련에 취직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찾다가 이듬해, 미 군정청이 불하한 중구 초동의 적산 200평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공업사' 건판을 달고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라는 상호의 시작이다.(정주영 1997 p.50) 자동차공업사는 해방 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매일매일 변장한다.

그러나 아산은 관청이나 미군에서 나오는 일거리를 하면서 정성이 변쩍 드는 상황을 목격한다. 즉 자동차 수리를 해서 받는 돈은 기껏해야 30~40만원 정도인데 건설업자들은 한 번에 1천만 원씩 받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래서 아산은 '나도 큰 돈 받아내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토건업을 시작하고자 의논을 한다. '현대토건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동생과 매제가 반대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반대 이유는 토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성도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대토건사'의 간판을 달고 토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독선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산 스스로도 '남들이 볼 때 무모하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 이처럼 무모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아우들이 따랐던 것은 물론 아산의 표현처럼 아산이 급한 성격으로 완력을 마구 휘두른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형제들간의 근본적인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판을 달 '현대토건사'는 미군 통역 장교 일을 하던 동생 덕분에 미군 공사를 거의 독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아산은 한 겨울에 미군 모지 공사를 하며 보리를 이용하여 미군들 보기에 만족스럽게 마무리한 것이다. 이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낼 수 있었던 역발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아산의 일차적 고민은 어떻게 '현대'를 살려 나갈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교' 사업을 맡아 '현대'는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 이때 아산은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다만 이 사업에서 설령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을 때 '현대'가 앞으로 연계 될 '신용'이라는 엄청난 무형의 자산에 주목하고 있다.

3) 경국의 시기 : 경제 활동으로 국가 번영에 기여

자서전에서 아산이 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현대'가 드디어 해외건설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출하면서부터이다. 물론 이때 기술의 낙후와 경험 부족, 공사 관리 체계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현지의 나쁜 토질 등으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령교 사업 이후 두 번째로 공사를 중단

하라는 건의가 나온다. 이 때 아산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논리, 즉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현대'를 제시한다. 즉 국가 전체의 사정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쌀가게 운영에서부터 아도서비스 자동차 화재 당시 그리고 고령교 공사의 경우 아산이 일관되게 강조한 가치는 신용이었다. 즉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유지하여야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현대만 생각하면 중단하고 마는 것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현대'만 생각할 수 있는가? '현대'는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이며 대한민국에는 '현대' 말고도 건설회사가 많고도 많다. 해외 건설 시장 진출로 첫 스타트를 끊은 '현대'가 만약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정주영 1997, p.101)

이제 아산은 단순히 '현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다른 건설회사들에 미칠 타격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산이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현대'가 해외 진출과 더불어 아산이 이제 '현대의 명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건설회사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오일 쇼크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중동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산은 점점 더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덕분에 '현대'는 국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덕분에 정부로부터 전폭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산은 "내 사업이 '정권과 결탁'해서 커온 것으로 간단히 매도되고 격하되는 것이 아주 싫었다. 나는 자력으로 크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웠다"고 말한다.(정주영 1997, p.97) 아산의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인지 여부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몫이라 하겠다. 그러나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기업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기업과 국가가 서로 긴밀한 유기적 협력을 통해 냉혹한 국제 경제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산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대한민국 전체를 고려하며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면서 사업 분야를 여러

업종으로 다각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산은 197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처음 맡아 1979년과 1980년의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1987년까지 5차례 연임한다. 이제 아산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인물이 된 것이다. 아산은 1970년대 말부터 가령 세계 개혁 방향이나 중화학 공업 분야 중북투자 처리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정부와 긴장하고 갈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 특히 신군부 집권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면서 아산은 여러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한다.

그러한 만큼 이 시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아산은 점점 더 독자적 발언들을 하기 시작한다.(정주영 1997, p.246) 특히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된 후 진행된 기업 통제함에 대하여 아산은 “나는 찬성 안합니다.”하며 정면으로 반대하였다고 주장한다.(정주영 1997, p.256)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은 시대”에 기업 통제함안이 통과되고 “창업자였던 아우 인영이가 옥고까지 치르면서 1천 한 푼 못 건지고 창원 증공업 공장을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한다.(정주영 1997, p.265)

이런 상황에서 1981년에는 88올림픽 유치 민간 추진위원장을 “아무 상의 없이” 떠맡게 되었다고 아산은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올림픽 망국론자였던 그 당시 총리는 우리가 아무리 거국적 유치 활동을 벌여도 일본을 제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뭐가 잘못돼 유치가 성공한다고 해도 올림픽 때문에 경제 파탄에 빠져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정주영 1997, p.270) 이런 상황에서 온갖 난관을 뚫고 올림픽을 유치를 성사시킨 후 아산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나는 내 할 일은 하는 사람이다.”(정주영 1997, p.275)

이 말은 아산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당시의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일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 나라를 위해서였다. 정부가, 사람이, 권력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조국은 언제나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조국은 날마다 발전, 번영하면서 영원해야 한다.”(정주영 1997, 292)

이것은 아산이 조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이것은 홀동광산에서 아우들이 일본군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일본인들과 사업을 하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4) 평천하 시기

올림픽 유치, 정치 활동 그리고 남북 회담 노력(1981~2001)

1980년대 초반 올림픽 유치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을 맡게 되면서 아산의 활동 무대는 이미 경제 분야를 넘어지게 된다.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아산은 정부에서 “일인반구의 상의도 없이” 사령장을 보내 와 떠밀려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여과없이 토해놓고 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계산은 자발적인 기부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당한 채 강탈당하면서도 아산은 5공화국 비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목을 받아 청문회에 불려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억울해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산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 듯하다. 또한 이렇게 비틀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산은 다시 생각하게 된 듯하다. 그 결과인지 아산은 이 시기 국민당을 창당하고 직접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일에 대해 아산은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새롭게 도전할 새 일감으로 정치참여를 결정하였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경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5년 동안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정주영 1997, 424)

주지하다시피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스스로 ‘일등 농사꾼의 아들로서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아산에게는 정치란 또 하나의 ‘일감’일 뿐이었고 그렇기에 정치 역시 새로운 도전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는 새롭게 도전할 일감으로 정치 참여를 결정하였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이나 마찬가지다.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5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모든 일을 깨끗이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정주영 1997, p.424)

그러나 아산은 낙선하였고 그로부터 5년 지난 1997년 두 번째 자서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회고한다.

“후자는 나의 대통령 출마에서의 낙선을 두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주장

하던 내 인생에 결정적 실패라 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쓰디쓴 고배를 들었고 보복 차원의 시련과 수모도 받았지만 나는 실패한 것이 없다. (중략) 나는 그저 선거에 나가 뽑히지 못했을 뿐이다. 후회는 없다.”(정주영 1997, 424)

결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다. 이러한 자부심은 오늘날까지도 거함 현대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아산의 자서전 내용은 구체적인 일화보다는 자신의 소회 혹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 아산은 경제인을 넘어 시인 구상의 표현처럼 “천하를 경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연령	연도			
이립	소년 시기	01~16	1915~1930	한학 수학, 보통학교	근면 성실의 내면화
	노동자 시기	16~23	1931~1937	가솔, 노동자	노동의 정당성 중요
제가	사업 모색기	23~31	1938~1945	정일상회, 결혼, 아도서비스	자기 사업 모색/신용
	현대 태동기	31~50	1946~1964	현대자동차/현대토건	수익의 극대화 추구
경국	해외 진출기	51~63	1965~1977	최초 해외 진출, 현대조선	정부의 지원, 대한민국의 현대
평천하	전경연 회장	63~73	1977~1987	올림픽 유치 활동	정부와는 독자 행보
	경제를 넘어	73~87	1988~2001	남북경협, 대통령 선거	할 일을 하는 사람

3. 서사적 자아 구성

이처럼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을 산 아산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아산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아산의 삶 전체를 하나로 꿰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은 무엇인가? 흔히 자아 정체성(self-identity)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질문은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핵심적 질문이라 할 것이다.

1) 아산의 다양한 모습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을 가진 생명체인 까닭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항상 변화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성장하고 발달한다. 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환골탈태라고 하며, 마음 곧 지성의 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했을 때 팔목상대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변화가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변화되기 이전의 존재와 변화된 이후의 존재를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산의 자화상을 제대로 그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아 정체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보통학교를 졸업한 아산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나 가솔을 시도 한다. 그 중 한 번은 온 가족의 생명줄과 같은 소 판 돈 70원을 흠치기까지 한다. 이러한 청소년 아산과 남북통일의 염원을 안고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고향을 찾아 가는 노신사 아산은 같은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나긴 인생 도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몸도 마음도 변화한다. 그래서 과거 질풍노도의 청춘 시절 열정에 사로 잡혀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 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정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다. 그래서 수 십 년 전 ‘과거의 나’를 어떻게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산의 경우, 고향을 뛰쳐나올 때는 돈이 목적이었으나 돈 버는 일에 자신이 붙으면 서 돈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정주영 1997, 421) 인생관 자체가 바뀌었다고 아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격동의 20세기 한반도에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 온 아산의 일대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릴 수 있을까?

2) 세 가지 이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하나의 자아로 일관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왔다.-Kopf, 22~38)- 우선 가장 오래된 첫째 이론은 본질주의 자아론(essentialism of self)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서양 고대의 중세 철학의 주류를 형성

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가령 ‘인간이란 이성적 동물’라든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구들은 “이성” 혹은 “사회성”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삼아 모든 인간이 지닌 공통된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가장 정교한 형태로 제시한 것은 보에티우스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 실체(nature rationalis individua substantia)”이다.

그러나 본질주의 자아론은 이와 같이 모든 인간, 즉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공통된 보편적 특징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보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산처럼 복합적인 궤적을 걸어 온 사람의 삶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두 번째 이론은 물리주의 자아론(physicalism of self)이다. 서양 근대의 경험적 분석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이론에서는 자아를 일종의 ‘심리학적 인 몸’으로 가정한다. 이를테면 자이란 ‘사고하는 복잡한 신체’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흄으로 대변되는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은 ‘영혼’이나 ‘본질’과 같이 의심스럽고 신비한 형이상학적 이론적 용어를 통해서도 자아 정체성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대신 다양한 개인들에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이론은 본질주의라는 전통적 자아 이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자아 정체성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 만다. 왜냐하면 이 입장에서는 ‘다중 자아’와 같은 개념을 통해 한 사람이 지닌 여러 가지 모습을 성공적으로 나열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여러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처럼 ‘자아의 분열’이나 ‘자아의 해체’와 용어들이 등장하였고, 자아의 통합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현재 자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서사적 자아론(narrative self)으로 보인다. 서사적 자아론은 앞에서 소개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전적 이론들이 지닌 형이상학의 부담과 현대판 자아 해체론이라 할 수 있는 다중자아론(multiple self)을 함께 피하면서도 현대 신경생리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아의 통합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서사적 자아론의 연원을 찾자면 로크, 제임스, 사르트르, 하이데거 등 여러 철학자들을 거론할 수 있으나 오늘날 이처럼 왕성하게 논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메킨타이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McIntyre 1981).

3) 서사적 자아

메킨타이어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삶을 통일성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대의 모든 시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 즉 사회적 장애와 철학적 장애와 만나게 된다. 사회적 장애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이 다양한 부분으로 분리되고 파편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과 여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정치와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마이클 샌델 등 소위 공동체주의자로 일컬어지는 학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Walzer, 315-330)

나아가 메킨타이어는 철학적 장애로는 분석 철학과 실존주의를 지목한다. 여기서 메킨타이어가 말하는 분석철학이란 결국 흄의 경험주의 철학을 의미한다. 이미 물리주의적 자아론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인간이 다양한 행위를 원자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한 결과 일상의 복잡한 행위들의 상호작용들을 단순한 구성 요소로 환원시켜 분석하고 마는 것이다. 메킨타이어는 이러한 자아를 정의주의적 자아(definitionist self)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한 인간의 총체적 모습은 사라지고 파편화된 부분들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산만하게 제시될 뿐이다. 실존주의 역시 사르트르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처럼 주어졌던 것들을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적 인습으로 치부한 후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인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출한 아산을 잡으러온 부친에 대한 생각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산은 부친이 집안을 돌보아야 할 종손의 책임을 말하자 정말 지긋지긋했다고 말하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솔직히 그때의 기분을 말하라면, 내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아버님이 귀신처럼 지겹고 원망스러웠다.”(정주영 1997, 51) 물론 ‘장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장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생 동안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대접하는 봉제사절민객(奉祭使接賓客)

의 생활을 하며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일 것이다. 어떤 전통이건 자발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인습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개인의 실존적 자유를 강조한 실존주의자들이 주목한 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존주의자들 역시 개인의 실존적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 허무주의를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파편화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인격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장애들과 철학적 장애들에 맞서 매킨타이어가 제시하고 있는 서사적 자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무대^{setting}'라는 개념을 포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무대란 배우, 곧 사람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공간이다. 매킨타이어는 무대라는 용어를 통해 사람이 원자처럼 고립된 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전통과 관행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때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 즉 이야기들은 연속과 불연속을 반복하며 서로 중복하며 이어진다. 그리고 종종 이질적이며 파편적인 사건들이 등장하여 삶의 연속성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사건들은 실제로 분열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요소들은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매킨타이어는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과 해명가능성(accountability)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서로 상충하거나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포착해 내고자 한다.(MacIntyre, 214)

4) 해명가능성

이런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아산은 해방 후 고향에서 오신 모친을 전차로 서울 시내 구경을 시켜드리던 중 중앙청 앞에서 내리자고 한 후 “어머니, 저게 조선총독부예요. 저는 장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서 저것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거예요.”라고 했다고 한다.(정주영 1997, 50) 아마 이러한 이야기만 듣게 된 독자들 이라면 아산이 아주 젊을 때부터 엄청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어린 시절 아산이 겪었다는 엄청난 가난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아산의 그 대단한 꿈을 선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저 일이 좋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들은 내가 부자라고 부러워도 하고 질투하지만, 실상 나 자신은 부자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중략) 차츰 일을 키우면서, 기업이 성장 하면서는 일이 좋아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갔을 뿐,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나,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의식은 터ப்பட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주영 1997, 362-363) 장차 최고 부자가 되겠다는 아산의 다짐과 재산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증언하는 노년 아산의 모습은 서로 상충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돈에 초연한 듯 말하는 아산의 모습은 가족이나 회사 직원 할 것 없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거의 인격적인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아산의 모습과는 어긋나 보인다.

이러한 상충을 아산은 “누이동생 회영이 한테 전해들은 얘기인데 누이동생은 어머님 한테 들었다고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표현들, 이를테면 “옛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이라든가 “덜타이 여신에 따르면” 등과 같은 표현들은 동서양의 많은 고전 작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산은 바로 자신에 대해 말하며 “○○○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아산의 불확실한 기억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서전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와 동시에 그 사건으로부터 아산을 제 3자화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해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간접적 증언을 통해 자신의 희망하는 모습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함으로써 인생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이해가능 하도록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서전을 서술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삶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4. 아산의 자화상 : 타고난 일꾼

80여년의 삶을 돌아보며 아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보여 주고자 하는 자화상은 “타고난 일꾼”이라 할 수 있다. 아산은 두 번째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자 성실한 노동자로서 이 나라의 비약적 발전에 한 몫 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성실과 신용을 좌우명으로 삼고 오로지 일하는 보람 하나로 평생을 살았다. (중략) 타고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오늘의 나일뿐이다.”(정주영 1997, 431).

이처럼 아산은 자서전 전체에 걸쳐 자신이 일꾼이라는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심지어 68세의 나이에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도 “나는 부유한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정주영, 『새로운 시작에의 열망』, p.11.)

1) 이상적 노동자상 : 근면 성실한 부친

왜 아산은 자신이 ‘일꾼’ 혹은 ‘노동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한 노동에 대한 행복한 체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산이 “평생 가장 큰 스승이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모하는” 부친이 어떻게 일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아산은 부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농사철에는 농사일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도 손 놓고 앉아 그냥 쉬는 법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야 술 먹고 놀거나 말거나 (중략)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하셨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다.” (정주영 1997, 16)

뿐만 아니라 아산의 모친 역시 ‘일등 농사꾼’인 아버님께 절대로 뒤지지 않는 ‘일등 농사꾼의 일등 아내’였다. 농사일을 거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을 키워내면서 누에를 치고 뻐어난 솜씨로 명주 길짜까지 한다. 게다가 목표를 세워 놓고 반드시 그날 목표에 이르러서야만 베틀에서 내려 왔다고 한다.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이었던 모친은 명주 짜기뿐만 아니라 발매기를 해도, 남이 한 두럭을 매는 동안 두 두럭은 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고 한다.(정주영 1997, 19) 근면성실함과 목표지향성을 바탕으로 일등을 지향하는 효율적 노동! 이것이 바로 아산이 부모님과 함께 몸으로 배운 노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산은 소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부친으로부터 대를 이어 ‘일등 농사꾼’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방학이나 일요일은 물론 새벽부터 밤늦도록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아산에게 자유시간이란 어림 반쯤어치도 없는 일이었다.(정주영 1997,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노동에 대해 꿀맛과 같은 행복을 맛보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과 아산의 부친 사이에는 일을 대하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아산이 일의 장래성 곧 수익성을 철저히 따진다는 점이다. 아산이 가출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농사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농사일을 해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죽도록 일해도 배불리 밥 한 번 못 먹는”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3가지 유형의 노동

아산이 생각하는 일꾼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아산이 청년 시절 경험한 노동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노동은 고향에서 가출하기 전까지 농사일이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은 생활의 장과 노동의 장이 분리되지 않은 근대 이전 농경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가적 유형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은 가족이나 이웃이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노동 자체는 대체로 즐겁게 이루어지며 대체로 추수철이 되면 그 결실을 보면서 뿌듯한 성취감을 선사한다. 아산이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바탕은 바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런 노동 과정에서 크나큰 행복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가뭄이나 홍수 등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흉년이 들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엄청난 좌절을 안겨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아산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고향 땅을 벗어나려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이다.

아산에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의 노동은 인천 부두와 풍전 엿공장 그리고 보성전문학교

신축 현장 등에서 했던 막노동이다. 이와 같은 날품팔이꾼의 불규칙한 노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이다.(Max Weber, 1988). 그래서 아산은 그래서 이 시기 “틈만 나면 쏘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하며 보다 나은 직장을 찾는다.”(정주영 1997, 32) 이처럼 “확실한 직업이 없는 한 인간의 노동은 불규칙한 우연적 노동에 불과하며 노동보다는 태만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베버는 진단한다. 베버가 볼 때 이처럼 안정적 ‘직업없는 자’의 삶에는 현세적 금욕이 요구하는 체계적-방법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은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기능적으로 고도로 분화된 산업 사회의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노동의 분업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도 산업 사회에서 자본가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노동자들은 특화된 제한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노동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노동 분업이 진행될수록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대부분의 사람의 활동은 ... 점점 더 몇 가지 안 되는, 터러는 한두 가지의 노동 과정으로 제한된다. 매일 몇 가지의 단순한 행동만 반복하면서 자신의 지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게 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둔하고 멍청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Adam Smith, 1987).

그래서 이러한 노동에서는 이중의 소외가 발생한다. 첫 번째 소외는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이다. 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순서에 따라 단순 움직임을 반복하며 마치 기계 부품처럼 걸락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소동의 성과 역시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고용주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는 노동 산물로부터 다시 한 번 소외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노동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노동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소외된 노동 때문일 것이다.

청년 아산에게 세 번째 유형의 노동은 쌀가게 점원으로서 가게를 경영하는 일이다. 처음 아산은 쌀 배달꾼으로 취직을 하지만 타고난 부지런함과 부기 학원에서 배운 장부 정리 요령 그리고 자전거 배달 기술을 배우면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 사실상 쌀가게를 운영하게 된다. 즉 자신의 방식으로 창고 안의 쌀과 곡식을 정리하고 단골 고객을 관리하며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쌀가게 전문 경영인이 되는 것이다.(정주영1997,

35) 그리고 쌀가게 취직한지 2년 후 드디어 인수 제안을 받고 스스로 쌀가게 경영자로 변신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더 하려야 더 할게 없는,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이라는 아산의 인생을 엮어온 근면함이 빛을 발한다. 점원으로 취임한 쌀가게를 인수하며 아산은 이제 밥벌이를 위해 ‘문전구사(門前求食)’의 날품팔이 노동자에서 전문 경영인을 거쳐 드디어 사업가로 변모한다.

3) 노동의 의미

사농공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는 머리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비해 몸을 써 맘을 흘리며 농사를 짓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었다. 이점은 고대 희랍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사상가들은 귀족적 여가 사회에서 이론적인 관조를 중시하는 학문 활동이나 정치적 참여와 연극 예술과 같은 여가 활동을 강조하면서 맘을 험든게 흘려야 하는 노동은 노예의 몫으로 명시하였다. 왜냐하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노동은 필요 불가결하지만 육체는 이성의 감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플라톤, 『파이돈』) 이러한 삶은 고상하지 않으며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참된 본성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노동을 명시하였던 것에 대해 귀족적 신분주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토마스 바세크, 37).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은 기독교와 더불어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따르면 노동은 야훼 신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저지른 원죄의 결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받게 된 고난이자 처벌이다. 이에 비해 이러한 고통스러운 노동이 없는 자유 시간이 바로 낙원으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노동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 역시 희랍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노동은 야훼 신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싫든 좋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약 성서에서 노동은 더욱 강조된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은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테살로니카 후서 3:10)

실제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한 곳에 사흘이상 머무르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중세 수도원의 생활에서도 노동은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베네딕

도 수도원의 경우 여가를 “영혼의 원수”로 생각하였다.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독(聖讀)을 할 것이다.”라는 베네딕토 규칙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가장 유명한 수도원 원칙은 바로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ora et labora)”이다. 노동이 힘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만 영혼이 깨어 있도록 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으로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세의 수도사들이 추구한 최고의 목표가 순수한 정신적 삶, 즉 관조적 삶(via contemplativa)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원칙에 대한 별도로 주어진 육체의 노동 역시 신이 부과한 신성한 의무로 간주되었다. 수도회의 이러한 엄격한 규칙과 의무는 서구에서 노동 규율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양에서 노동이란 고대 희랍의 전통과 히브리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근원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 이점은 노동에 해당하는 서양의 여러 어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선 우리 말 ‘노동’과 가장 근접한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트 arbeit”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게르만어의 “아레바이트 arebeit”는 “고된 육체적 혹사”와 “과로”를 의미했다. 이 말은 독일 기사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니벨룽겐의 노래』의 첫 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전쟁과 살육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이 지닌 이러한 부정적 함축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우선 노동은 빈곤을 막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유포피아』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스 모어는 이미 1516년 이 책의 출간 당시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함으로써 빈곤이 사라진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수필처럼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지하여 게으르게 살면서 나태에 빠진 귀족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게으름에 빠진 ‘힘 있고 건강한 거지들’ 역시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와 반대로 유포피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업 교육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칸트의 경우 기독교 교리와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옹호하고자 한다. 즉 여가를 일종의 “덤 빈 시간”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은 인간 속에 ‘활동의 가시’를 집어넣었다고 설파하면서 여가와 노동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립 하고자 한다.

“우리의 감각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 건강한 상태에서 노동 후에 갖는 휴식이다. 건강한 상태에서 먼저 노동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려는 성향은 게으름이다.”(Kant, 554).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이산의 다음과 같은 연설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우리의 현실이 아직은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 하고,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한가하게 쉬고 과소비를 일삼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 건강이 풀어지면 그 틈에 유희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정주영 1997, 46)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도덕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쾌락과 같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일 수 있겠는가? 칸트는 이에 대해 네 가지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한다. 첫째 거짓 약속을 하지 말 것, 둘째 자살하지 말 것, 셋째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울 것, 그리고 마지막 번째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것. 이 중에서 노동과 가장 근접한 것은 네 번째 유형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무와 두 번째 의무에 비해 세 번째 의무와 네 번째 의무의 경우 정당화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앞의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보편화 가능성 자체를 바로 여기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뒤의 두 가지 의무에 대해 비록 보편화 가능성을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타고난 합목적적 본성에 어긋난다고 함으로써 불완전한 의무로 설정한다. 이것은 노동을 도덕적 의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노동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가령 프랑스의 원시적 사회주의자인 푸리에와 같은 경우 노동을 기본적 인권으로 이라고 주장한다. “빈민들에게 그들이 받은 교육에 적합한 적절한 생계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족한가? 자연권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권리 즉 노동권이 빈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노동은 자연과 더불어 부의 원천이다. 자연은 노동에 재료를 제공해 주고, 노동은 이 재료를 부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노동은 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은 인간 삶 전체의 기본 조건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이 인간 자체를 창조했다고 할 만큼 말이다.” (엥겔스,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에서 진행되는 현실의 임금 노동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된 것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경우 노동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를 철폐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며 둘째 이 혁명 과정은 단순히 경제 관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에 물든 인간의 탐욕적 성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지구상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주의 실험들이 오늘날 보여 주는 결과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막스 베버 역시 노동에 대한 성과급 제도가 노동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인간은 본성상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살고 그에 필요한 만큼만 벌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빈곤한 경우에만 노동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노동에 성과급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루터 이래 프로테스탄트들의 직업관이라는 점이다. 즉 세속적인 직업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즉 노동은 '도덕적 자기 증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며 '이웃 사랑의 외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원죄에 대한 처벌이나 금욕의 수단으로 노동을 바라보던 가톨릭 교리와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근본적 차이라고 주장한다.(Max Weber, 112-118.)

이점은 칼빈주의에서 유래된 영국 청교도주의가 직업 사상에 대한 가장 철저한 정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사상가인 Richard Baxter의 저술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의 실천적 목회 경험에 입각하여 청교도적 도덕 신학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편람을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을 갖고 휴식을 하는 것, 부를 향락하여 태만과 정욕을 낳고 특히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에서 이탈시키는 것. 재산이 죄악시 되었던 것은 오직 그것이 이러한 안주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시간 낭비는 모든 죄 중에 최고의 중죄이다. 인생의 기간은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사고, 무교한 잡담, 사치 등을 통한 시간 낭비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적정 시간(6~8시간)을 초과하는 수면으로 인한 시간 낭비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비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낭비된 모든 시간은 신의 영광에 봉사하는 노동에서 감해지기 때문이다. ... 노동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직업 노동이 바로 신이 원하는 바이다. ... 그러므로 확고한 직업(certain calling, stated calling)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것이다.”(Baxter S. 79.)

그 결과 직업의 의무, 즉 노동을 통해 부의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람은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이라도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 결과 확고한 직업의 금욕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근대적인 전문 직업을 윤리적으로 신성시했듯이, 이윤 기회에 대한 심리적 해석은 기업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자수성가한 부르조아지 역시 윤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베버는 주장한다.(weber, 119)

프로테스탄트적 금욕 자체는 아무런 새로운 점이 없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은 이러한 관점(노동에 충실한 것이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매우 강력하게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범이 통용되기 위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 내었다. 즉 이 노동을 직업(소명)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가장 좋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일하기도 한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심리적 동인을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청교

도주의는 합리적인 부르조아 경영과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수행했다. 그리고 베버는 다음과 같이 침언한다. “이 금욕은 다른 면에서 기업가의 화폐취득도 ‘소명’이라고 해석하여 위와 같이 특별히 노동 의무를 가진 자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였다.” (Weber, 122)

4) 아산에게 일의 의미

아산은 쌀가게를 인수한 후 서울에서 제일가는 가게를 만든다는 포부로 ‘정일상회(正日商會)’로 간판을 바꾸어 단 이후에도 부지런히 일한다. 그러나 이제 그 부지런함은 내용상 많은 변화를 함축한다. 즉 쌀가마니를 나르는 것처럼 몸으로 힘을 쓰는 단순 노동보다는 기존의 단골을 유지하고 더 큰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세 거래처를 찾아 다닌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이전의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신체 활동에 한정되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쌀가게 일꾼으로서 아산의 이전 활동들은 쌀가게 곡식들을 잘 정돈하고 장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처럼 대체로 주인이 부과한 일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쌀가게를 경영하는 주인이 되면서 그 활동은 근본 성격을 달리한다. 이제 아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해결 방향 역시 스스로 모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 지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면서는 밤을 새워가며 손에 기름 테를 묻히며 직접 자동차 수리를 하였고 홀동광산에서 운수업을 하던 시절에는 손수 트럭을 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위험한 공장에서 인부들이 몸을 사리자 직접 장비를 들고 앞장서서 그 난관을 돌파한다. 아산은 경영자가 된 이후에도 몸으로 하는 힘든 노동을 결코 멀리한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는 스스로에 대해 ‘부유한 노동자’라고 주장할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이라기보다는 출신수반의 리더십이자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5. 아산의 꿈

아산은 자신이 현재 위치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이처럼 근면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도달한 결과라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 즉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집실에 걸린 액자는 그의 인생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아산은 ‘정권과 결탁해서 커 온 것으로 간단히 매도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아산은 1970년대 후반 이미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특히 5공화국 집권층으로부터 받은 여러 수모를 말한다. 이를 통해 아산은 정경 유착이라는 비판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오히려 권력층으로부터 수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올림픽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누가 뭐라 하진 할 일은 하는 사람!” 아산은 다시 한 번 자신이 일꾼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아산은 자서전 도처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산이 어떤 사업의 수익성, 즉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달랐고 그 때문에 이점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언제나 무모한 것으로 보여 수많은 반대를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아산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보다는 완력을 통해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회고한다. 결과론적으로 아산의 결정은 많은 경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은 아산의 뛰어난 통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며 아산에게는 ‘거인’ ‘영웅’ 등의 찬사들이 쏟아진다.

그런데 아산에게 정작 높이 살 부분은 눈앞에 다가온 이기적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칠 장기적 이해관계를 냉철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이 아닐까? 이를 테면 고려교 공사에서 보는 것처럼 더 큰 신용을 위해 아산은 눈앞의 엄청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아산의 회고는 이점을 잘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또한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커지면서 생각의 테두리도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현대건설은 국가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목표가 내 마음 속에 심어진

것은, 굳이 시점을 집어내라면 아마도 6·25 피난 시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만약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서 오늘까지 왔다면 도저히 지금의 '현대건설'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산의 자화상이 어느 한 순간에 고정된 정물화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펼쳐지는 파노라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산이 꿈꾸었던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라는 아산나눔재단의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은 성공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사적인 열망을 공동체에 대한 공몽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아산의 자서전은 웅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論語』
 『史記』
 『大學』
 『마태복음』
 베네딕토 수도회 규칙서
 플라톤, 『파이돈』
 『니벨룽겐의 노래』, 작자미상, 허창운 옮김, (범우, 2014)
 구상, “겨레의 뭇 가슴에 그 응지 그 경륜이 - 고 정주영 대인 영전에”
 토마스 모어,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음유문화사, 2007).
 아우구스티누스, 강영계 옮김, 『고백록』(서광사, 2014).
 이성태,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민맥, 1991).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정초』(아카넷)
 Geroon Kopf, *Beyond Personal Identity*(Rechmond Surrey: Curzon, 2001).
 K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International, 1964).
 A. M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 New York 2003.
 Michael Walzer, “Liberalism and the Art of Separation,” *Political Theory*, Vol. 12, No. 3 (Aug., 1984), pp. 315-330.
 Max Weber,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문예출판사, 1988).
 토마스 바세크 지음, 이재영 옮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열림원, 2014).
<http://www.ectaco.co.uk/English-German-Dictionary/>
 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현대문화신문사, 1991).
 정주영, 『새로운 시작에의 열망』(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솔, 1997).

<Abstract>

Asan's Self-Portrait on Autobiography

This research is to figure Asan's spirit⁽⁹⁾ out by analyzing his autobiographies and speeches. An autobiography is critical to understand its author because it releases confidential episodes which only she or he can know. But it is subjective because it is based on her or his own incomplete memories even if confession is sincere. So this research is just to re-organize Asan's many episodes and to suggest who Asan wanted to be, neither to prove who Asan really was, nor to find new episodes never known to us till now.

Asan's whole career can be classified four stages; personal free standing^(而立), well-ordering family^(齊家), contributing to Korean people by entrepreneurship^(經國) and making reconciliations within and beyond Korean peninsula^(平天下). As the founder of Hyundai group, Asan was well known to make huge donations and to establish many kinds of big social foundations. But he tried to runaway from his parents four times to escape from the poverty given to the first son of poor farmers. How can young Asan be understood consistently with old Asan? How can Asan's moral development, if any, can be described? 'Intelligibility' and 'accountability' which are key components in MacIntyrean narrative self are introduced to reorganize Asan's many episodes narratively.

"Born Faithful workman" was regarded Asan's ideal self-portrait, which was originated from his father who was the most highly beloved and respected person from Asan. Coupled with 'doing the best,' diligence and credibility were essential virtues which were greatly put emphasis upon, whenever he explained what he had achieved overcoming so many kinds of tough obstacles.

Key words : Asan, Joo-Young Jung, self, autobiography narrative, narrative self, self-portrait

지금도 살아있는 아산!

권영해 (전 현대중공업 상무, 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처음 아산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 분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젊은 신입사원 시절 사내체육관에서 열린 조회에서 그분의 훈시를 듣거나, 사무실을 둘러보러 오셨을 때 민발치에서 된 적은 있지만, 우리 선배세대처럼 직접 그분과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그 분과 직접 만나 일한 적은 없었지만, 그 분의 정신이 나의 직장생활, 나아가 나의 삶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지금도 그 성격은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는 주변사람들이 나를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이런 성격을 얘기하면 잘 믿어주거나 선뜻 동의해 주지 않는다. 왜 이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35년이라는 세월을 현대에서 보내며, 내 근본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현대의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문화에 쫓겨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으로 현대는 나에게 평생의 삶의 터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관 자체를 바꾸고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도 바꾸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내가 직접 만나 함께 일한 산업화시대의 영웅들의 행동양식과 정신에 맞닿아 있고, 이 분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아산 정주영회장의 철학이 그 근원이 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아산의 정신을 선배들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고